

2026년 8월 가계대출 동향(잠정) 및 「가계부채 점검회의」 개최

◇ '26.8월 **全 금융권 가계대출은 +2.6조원 증가하여 전월(+6.4조원) 및 전년 동월(+4.8조원) 대비 증가폭 축소**

* 증감액(조원) : ('26.2월)+2.9 (3월)+3.5 (4월)+3.5 (5월)+9.3 (6월)+8.3 (7월)+6.4 (8월^{*)})+2.6

◇ 주택공급 촉진, 청년 주거 안정 등 정책적 목적의 자금을 차질 없이 공급하되, 금융회사별 총량관리 목표 이행을 위한 관리 노력 지속

◇ 금융권 고정금리 주담대 취급현황 점검, 은행권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출시 유도 등 향후 금리 변동에 따른 리스크 관리 강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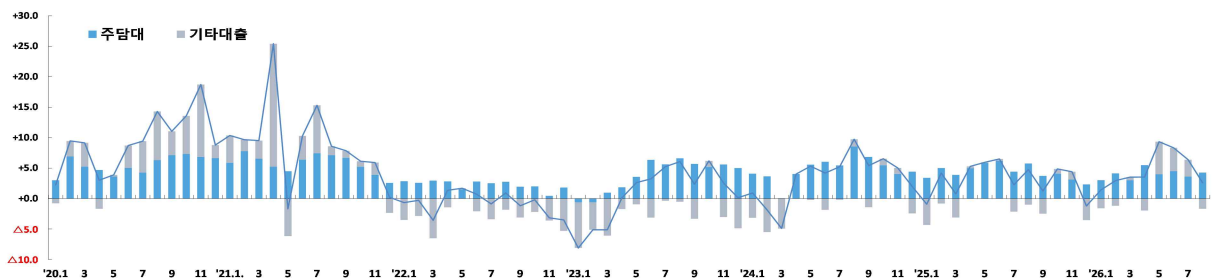
※ 【관련 국정과제】 58. 금융안정과 생산적 금융을 위한 가계부채 관리

1 2026년 8월 동향

'26.8월 **全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+2.6조원 증가하여 전월(+6.4조원) 대비 증가폭이 축소되었다.**

全금융권 주담대·기타대출 증감액 추이

(단위 : 조원)



주택담보대출은 +4.3조원 증가하여 전월(+3.6조원) 대비 증가폭이 확대되었으며, 은행권(+3.5조원 → +4.0조원)과 제2금융권(+0.1조원 → +0.3조원) 모두 증가폭이 확대되었다.

기타대출은 △1.7조원 감소하여 전월(+2.8조원) 대비 감소세로 전환되었으며, 이는 신용대출이 감소세로 전환(+2.1조원 → △0.5조원)된 점 등에 기인한다.

대출항목별 가계대출 증감 추이

(단위 : 조원)	'26.2월	3월	4월	5월	6월	7월	8월 ^P
주담대	+4.1	+3.0	+5.5	+4.0	+4.5	+3.6	+4.3
기타대출	△1.2	+0.5	△2.0	+5.3	+3.8	+2.8	△1.7
합계	+2.9	+3.5	+3.5	+9.3	+8.3	+6.4	+2.6

업권별로 살펴보면 '26.8월중 은행권 가계대출은 +3.4조원 증가하여, 전월(+5.5조원) 대비 증가폭이 축소되었다. 세부적으로는 은행 자체 주담대(+2.5조원 → +2.9조원)와 정책성대출(+1.0조원 → +1.1조원)의 증가폭이 확대된 반면, 기타대출(+2.0조원 → △0.6조원)은 감소세로 전환되었다.

※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 세부 현황(조원) :

(7월) 주담대(+3.5) = 은행자체(+2.5) + 디딤돌·버팀목(+1.1) + 보금자리론 등(△0.04)
↳ 일반(+2.1) + 집단(+0.9) + 전세(△0.4)

(8월^P) 주담대(+4.0) = 은행자체(+2.9) + 디딤돌·버팀목(+1.1) + 보금자리론 등(△0.1)
↳ 일반(+2.0) + 집단(+1.2) + 전세(△0.4)

* 디딤돌·버팀목 기금 자원 증가액(조원) : ('26.5월) △0.5 (6월) △0.6 (7월) △0.5 (8월^P) △0.4

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△0.8조원 감소하여, 전월(+0.9조원) 대비 감소세로 전환되었다. 상호금융권(△0.6조원 → △0.5조원)은 감소폭이 축소, 저축은행(+0.5조원 → +0.3조원)은 증가폭이 축소되었으며, 보험(+0.7조원 → △0.3조원) 및 여전사(+0.3조원 → △0.3조원)는 감소세로 전환되었다.

업권별 가계대출 증감 추이

(단위 : 조원)	'23년중 (1~12월)	7월	8월	'24년중 (1~12월)	7월	8월	'25년중 (1~12월)	7월	8월	'26년중 (1~8월)	7월	8월 ^P
은행	+37.1	+5.9	+6.9	+46.2	+5.4	+9.2	+32.9	+2.8	+4.1	+24.5	+5.5	+3.4
제2금융권	△27.0	△0.6	△0.8	△4.6	△0.2	+0.5	+5.1	△0.5	+0.6	+13.5	+0.9	△0.8
상호금융	△27.6	△1.7	△1.7	△9.8	△1.2	△0.9	+10.6	+0.4	+1.2	+10.1	△0.6	△0.5
신협	△4.4	△0.3	△0.3	△3.0	△0.4	△0.2	+1.5	+0.1	+0.1	+1.8	+0.1	+0.1
농협	△15.7	△0.9	△0.9	△5.8	△0.5	△0.7	+3.6	△0.3	+0.2	+6.3	△0.5	△0.7
수협	△0.8	△0.02	△0.05	+0.2	+0.02	+0.03	+0.2	△0.1	△0.01	△0.2	+0.004	+0.004
산림	△0.4	△0.03	△0.03	△0.2	△0.03	△0.02	△0.1	△0.02	△0.02	+0.1	+0.02	+0.02
새마을	△6.3	△0.5	△0.4	△1.0	△0.3	△0.02	+5.3	+0.7	+1.0	+2.2	△0.2	+0.1
보험	+2.8	+0.5	+0.3	+0.5	△0.1	+0.3	△1.9	△0.4	△0.5	+2.4	+0.7	△0.3
저축은행	△1.3	+0.1	+0.01	+1.5	+0.2	+0.4	△0.6	△0.3	+0.05	+0.5	+0.5	+0.3
여전사	△0.9	+0.5	+0.5	+3.2	+0.8	+0.7	△3.0	△0.2	△0.2	+0.4	+0.3	△0.3
초금융권 합계	+10.1	+5.2	+6.1	+41.6	+5.2	+9.7	+38.0	+2.3	+4.8	+38.0	+6.4	+2.6

[회의 개요]

금융위원회는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'26.9.9일(수) 관계기관 합동 「가계부채 점검회의」를 개최하였다. 이날 회의에는 재정경제부, 국토교통부, 한국은행,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, 제2금융권 협회,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하였다.

금일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8월 초 금융권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하고, 8.13대책 후속조치 이행 현황 등을 논의하였다.

- (일시/장소) '26.9.9.(수) 10:00, 정부서울청사
- (참석) 금융위 사무처장(주재), 재정경제부, 국토교통부, 금융감독원, 한국은행, 은행연합회, 생·손보협회, 저축은행중앙회, 여신금융협회, 농협·수협·신협·산림조합·새마을금고중앙회, 5대 시중은행(KB국민, 하나, 신한, 우리, 농협) 등
- (논의) 8월 초 금융권 가계대출 동향, 8.13대책 후속조치 이행 현황 등

[주요 논의사항]

(1) 8월 가계대출 동향 및 평가

금융위원회 신진창 사무처장은 “8월 주택담보대출(+ 4.3조원)은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(5.9일) 이전 주택거래량 증가¹⁾, 7~8월 입주물량 증가²⁾에 따른 잔금대출 실행 확대 등으로 전월(+ 3.6조원) 대비 증가하였으나, 금융권 자율관리 조치 등의 영향으로 기타대출³⁾이 4개월만에 감소세로 전환(+ 2.8조원 → △1.7조원)하여 가계대출 증가폭이 전월대비(+ 6.4조원 → + 2.6조원) 축소되었다”고 평가하였다.

1)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(만호, 국토부) : ('26.1)6.1 (2)5.8 (3)7.2 (4)7.0 (5)6.6 (6)6.9 (7)6.3

↳ 수도권 APT 매매거래량(만호) : ('26.1)2.3 (2)2.2 (3)2.7 (4)2.8 (5)2.9 (6)3.0 (7)2.6

2) 전국 주택 준공물량 추이(만호, 국토부) : ('26.1)2.2 (2)1.5 (3)2.0 (4)1.8 (5)1.3 (6)1.6 (7)3.2

3) 기타대출 증감 추이(조원) : ('26.1)△1.6 (2)△1.2 (3)0.5 (4)△2.0 (5)5.3 (6)3.8 (7)2.8 (8)△1.7

또한, “향후 가을 이사철* 등 계절적 자금 수요, 8.13대책에 따른 집단 대출(이주비·중도금·잔금대출) 별도 관리 등의 영향으로 주담대 확대 추세가 계속될 수 있는 만큼, 가계대출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지속해 달라”고 강조하였다.

* 최근 5년 월평균 주담대 증가규모 1.9조원 < 최근 5년 9월 평균 2.9조원, 10월 평균 2.2조원

(2) 8.13대책 후속조치 이행 현황 점검

신진창 사무처장은 “최근 발표된 「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 대책」(8.13일) 세부 과제 중 이주비대출 LTV 산정방식 합리화, 생애최초 요건 합리화, DSR 장래소득 인정기준 적용 활성화 등의 조치들이 8.31일부터 이미 시행*되었다”고 언급하며, “일선 창구에서 고객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산시스템 정비, 직원 교육, 고객 안내 등에 만전을 기하고, 생애최초 예외 인정 등을 위한 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 운영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”고 당부하였다.

* 「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기준」 변경 시행(행정지도, 8.31일), 「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모범기준」 개정(은행연, 8.31일) 등

또한, “8.13대책의 총량목표 조정 취지에 맞게 주택공급 촉진, 청년 주거 안정, 실수요자 자금애로 해소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자금을 적시에 차질 없이 공급해 나가되, 소 금융권이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금융회사별 총량관리 목표 이행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달라”고 강조하였다.

아울러, “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시중금리 상승* 등으로 차주의 상환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민·취약계층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회사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”고 언급하며, “향후 금융권의 고정금리 주담대 취급현황 점검, 은행권의 장기고정금리 주담대 출시 유도 등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”고 밝혔다.

* 예금은행 주담대 가중평균금리(신규취급액 기준) : ('26.5월)4.32%→(6월)4.36%→(7월)4.48%p (한은)

담당부서 < 총괄 >	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	책임자	과 장	권유이 (02-2100-2830)
		담당자	서기관	윤덕기 (02-2100-1690)
			사무관	이준협 (02-2100-1696)
			사무관	김현신 (02-2100-1692)
<공동>	재정경제부 자금시장분석과	책임자	과 장	박언영 (044-215-2740)
		담당자	사무관	신승헌 (044-215-2741)
	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	책임자	과 장	최병길 (044-201-3337)
		담당자	서기관	김도한 (044-201-3339)
	금융감독원 은행리스크감독국	책임자	국 장	황준하 (02-3145-8350)
		담당자	팀 장	이훈아 (02-3145-8352)
	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	책임자	국 장	이권홍 (02-3145-7460)
		담당자	팀 장	변지영 (02-3145-7455)
	금융감독원 중소금융감독국	책임자	국 장	이건필 (02-3145-6770)
		담당자	팀 장	이윤선 (02-3145-6773)
	금융감독원 여신금융감독국	책임자	국 장	조영범 (02-3145-7550)
		담당자	팀 장	김석원 (02-3145-7447)
	한국은행 금융안정국 안정총괄팀	책임자	팀 장	조성민 (02-750-6834)
		담당자	과 장	이영선 (02-750-6619)